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관한 인식·행동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25. 05. 09 ~ 06. 08

환경재단

목 차

1.	서문	2
2.	설문조사 개요	2
3.	주요 결과	3
4.	시민들의 목소리	8
5.	결론	9
6.	온라인 설문조사지	10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관한 인식·행동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K-GREEN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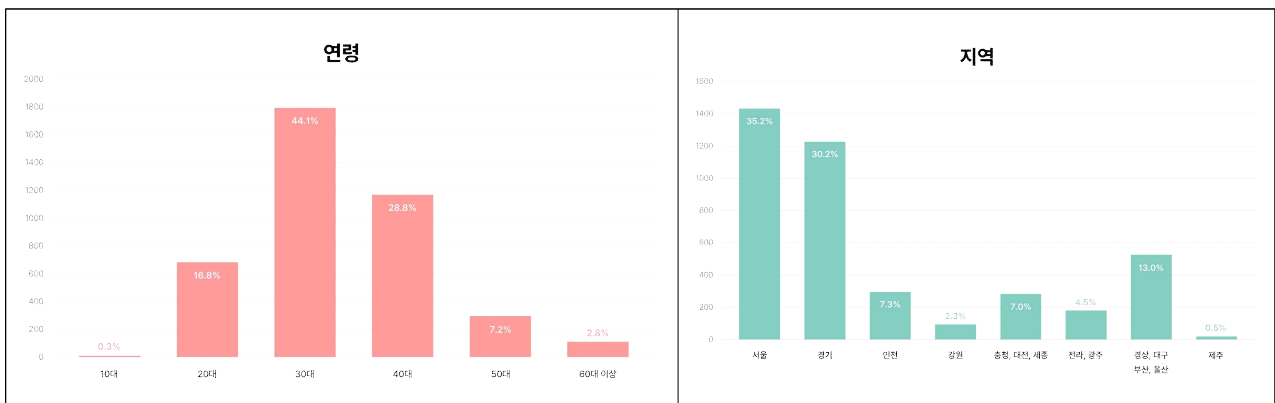
1. 서문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폐의약품 문제는 인식 수준은 낮지만,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이나 다 쓰지 못한 약물이 하수구, 일반 쓰레기통 등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질 경우, 토양과 수질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국민의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수준, 실제 행동, 정보 접근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생활 속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올바른 처리 방법이나 수거 장소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가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정책적 전환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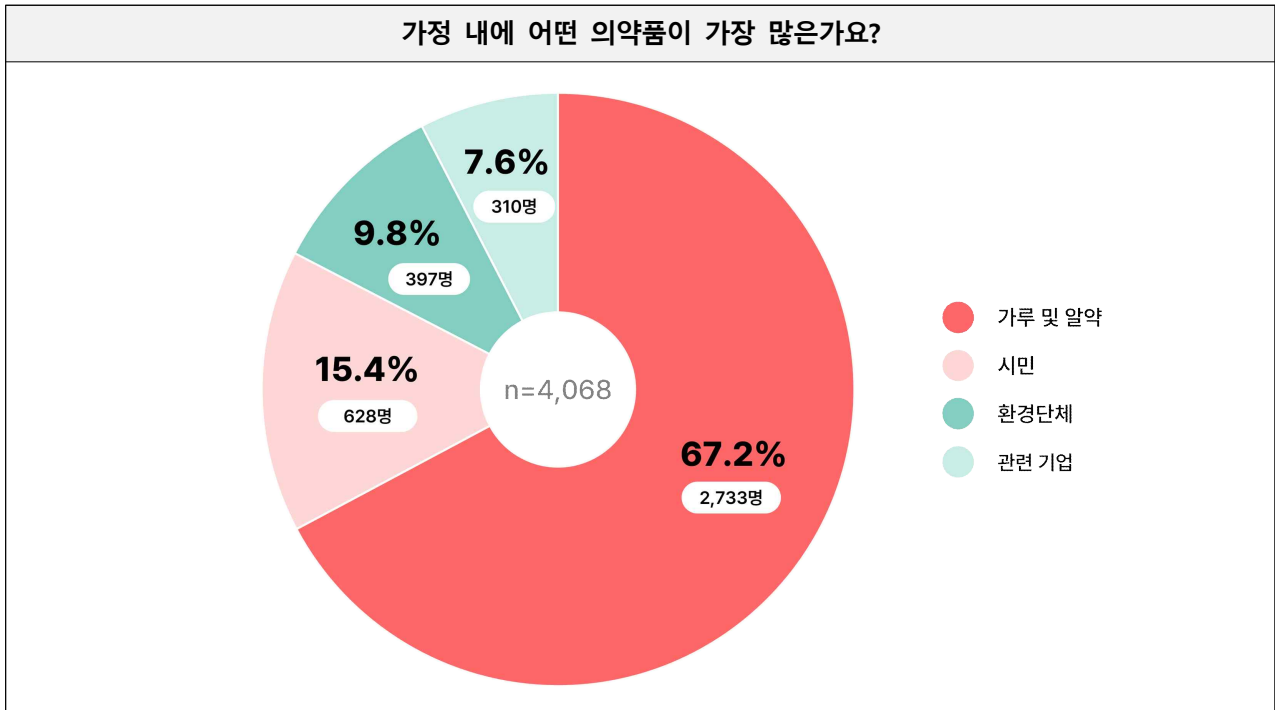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기간 : 2025년 5월 9일 ~ 6월 8일
2.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3. 조사 대상 : 전국 일반 시민
4. 응답자 수 : 총 4,068명 (여성 2,541명, 남성 1,527명)
5. 설문 구성 : 객관식 문항 13개, 점수 선택 문항 2개, 주관식 문항 1개



3.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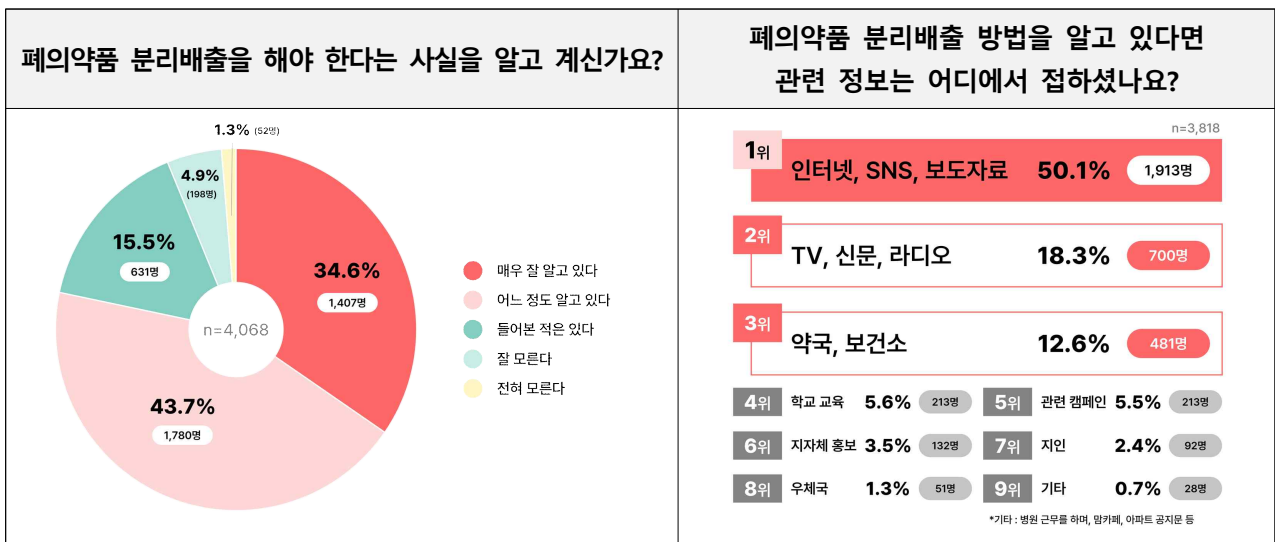
1) 가정 내 가장 많은 의약품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은 가루약 및 알약(67.2%)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감기약, 진통제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대부분 가루약 및 알약으로 제공된다는 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어서 연고(15.4%), 물약(9.8%), 파스(7.6%)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가루약 및 알약 형태의 폐의약품 처리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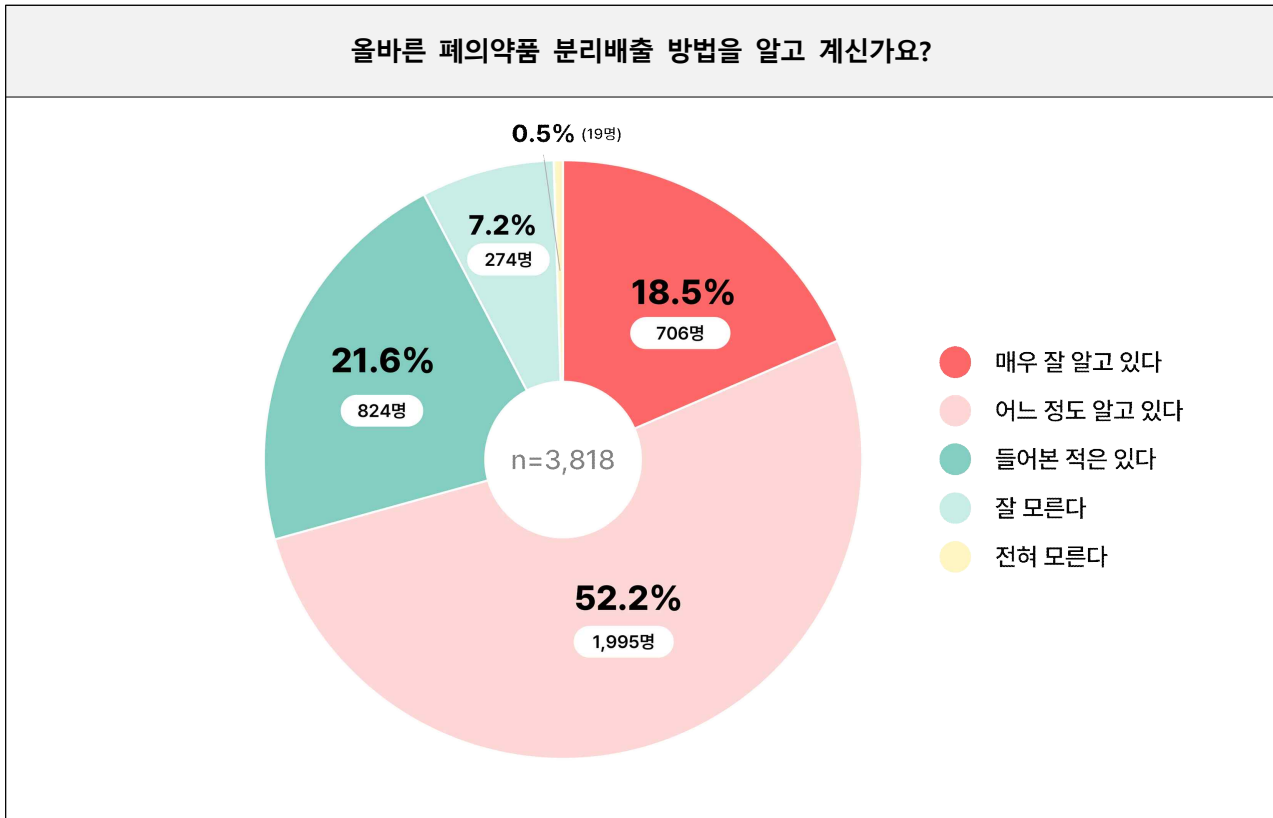
2) 분리배출 정보 접근 경로



폐의약품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34.6%), 어느 정도 알고 있다(43.7%), 들어본 적은 있다(15.5%)고 응답한 3,818명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정보를 어디에서 접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SNS, 보도자료(50.1%), TV, 신문, 라디오(18.3%)로 10명 중 7명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폐의약품 분리배출과 관련된 홍보가 온라인을 통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약국, 보건소(12.6%), 학교 교육(5.6%), 관련 캠페인(5.5%)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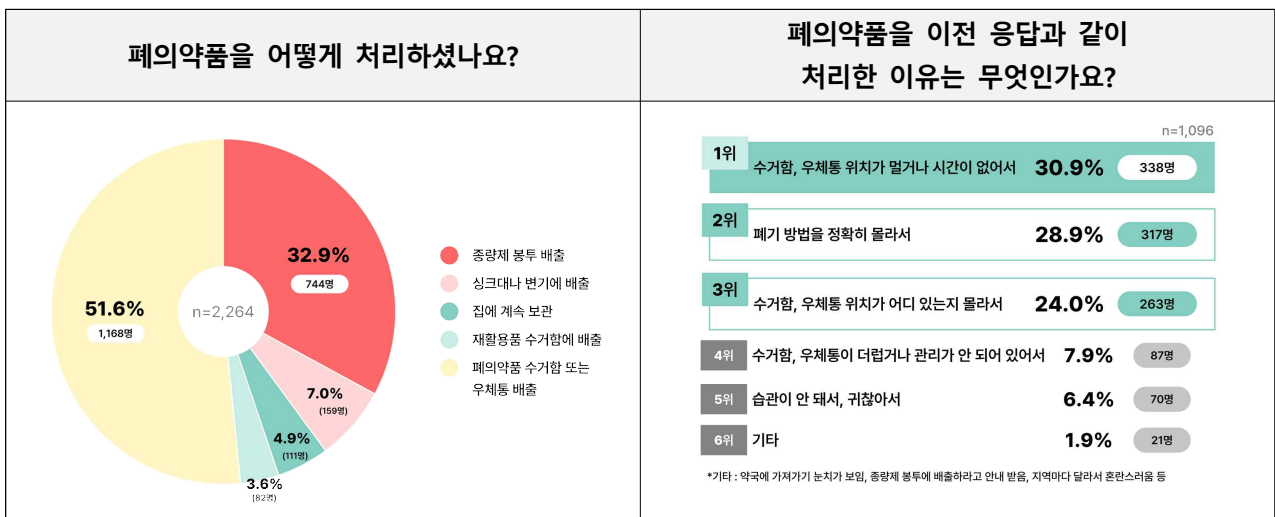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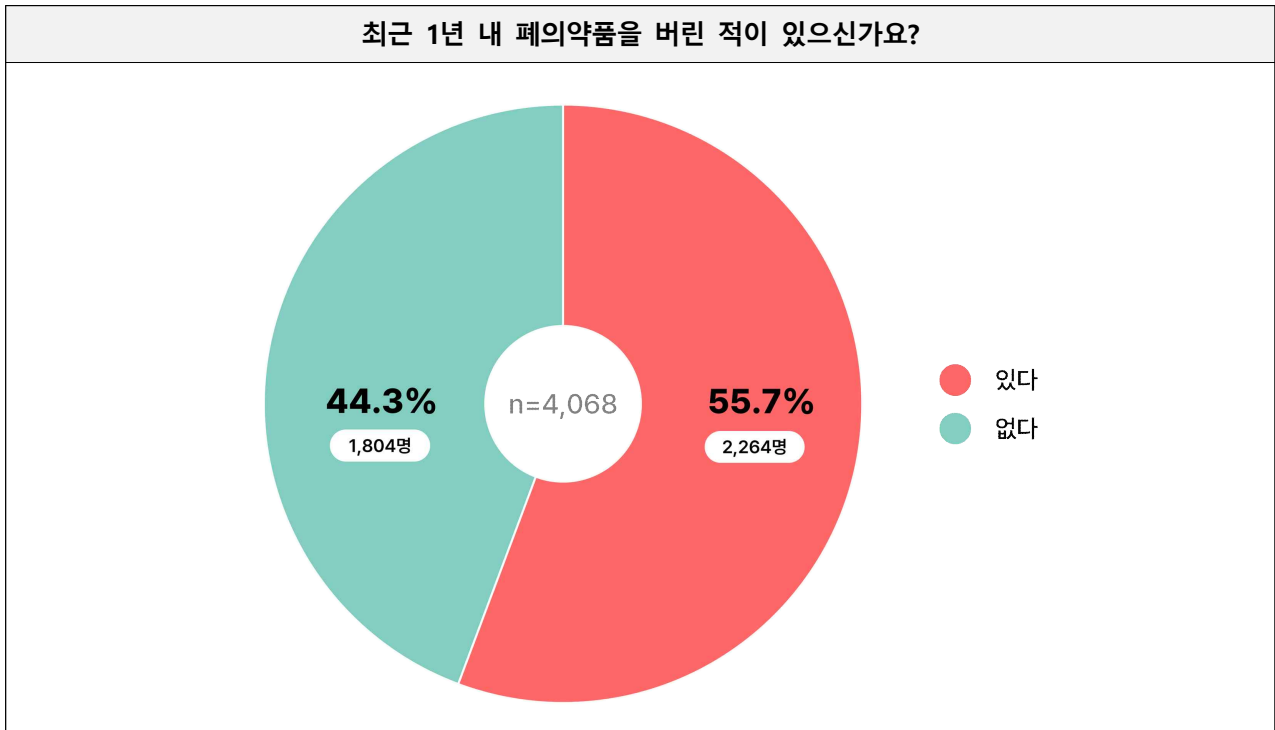
3) 인지의 착각 :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른다’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3.8%(3,181명)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92.3%(3,525명)는 분리배출 방법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 방법을 안다고 응답한 3,525명 중에서도 정확한 분리배출 대상(조제약, 일반의약품)을 숙지한 사람은 55.3%(1,94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폐의약품 문제에 대해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 전달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폐의약품 절반이 잘못 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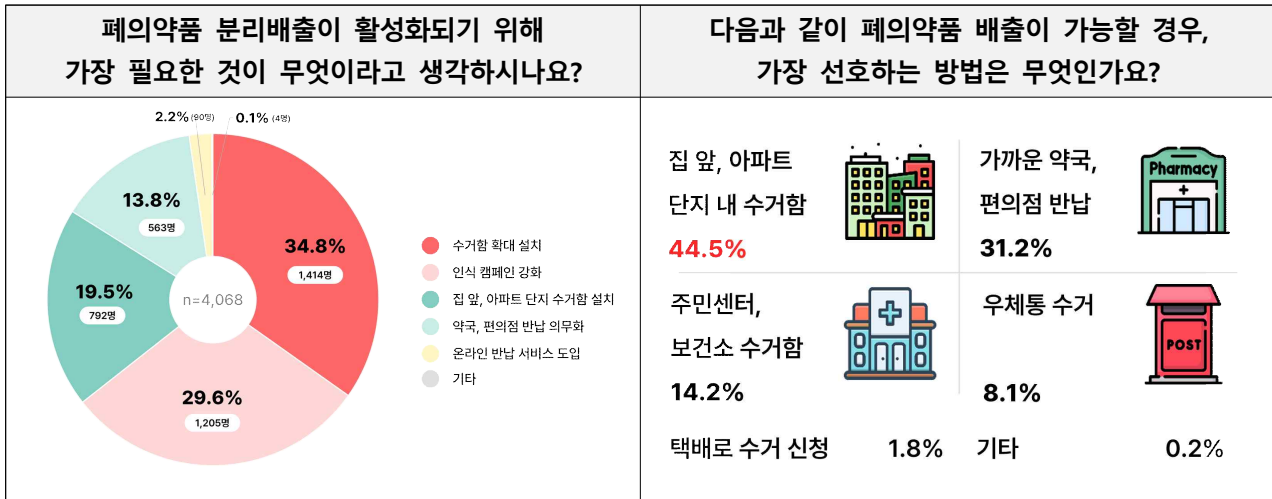
최근 1년 이내에 폐의약품을 버린 적이 있는지 묻는 응답에 55.7%가 '버린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폐의약품 배출 경험이 있는 2,26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096명(48.4%)이 종량제 봉투 배출(32.9%), 싱크대나 변기에 배출(7.0%), 집에 계속 보관(4.9%), 재활용품 수거함에 배출(3.6%)과 같은 경로로 폐의약품을 버리거나 보관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위 항목 중 '종량제 봉투에 버림'을 선택한 일부 응답자들은 지자체의 공식 안내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수원시¹⁾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이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고 있지 않기에 이는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문제로 지적됩니다.

1)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bd_gubn=&no=592&page_code=sub060901&utm_source=chatgpt.com

종량제 봉투, 싱크대나 변기, 재활용품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집에 계속 보관한다는 1,096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을 응답과 같이 처리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수거함/우체통의 위치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30.9%), 폐기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28.9%), 수거함/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24.0%) 순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함에 버리지 않는 이유를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 물리적 불편, 제도적 안내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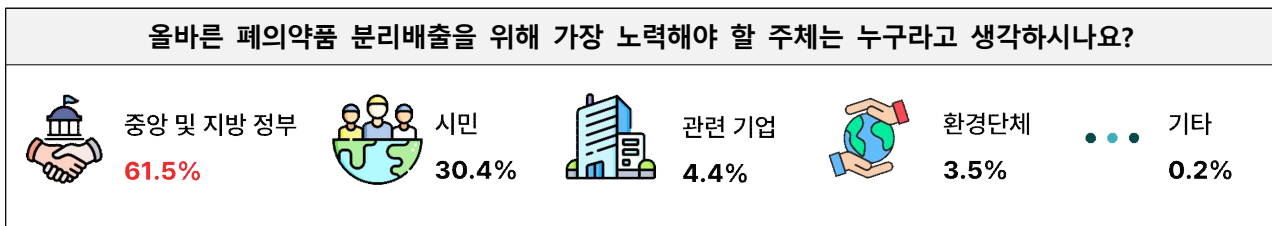
5) 폐의약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선호 방법



폐의약품이 활성화되기 위해 수거함 확대 설치(34.8%), 집 앞, 아파트 단지 수거함 설치(19.5%)로 10명 중 5명이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및 가까운 곳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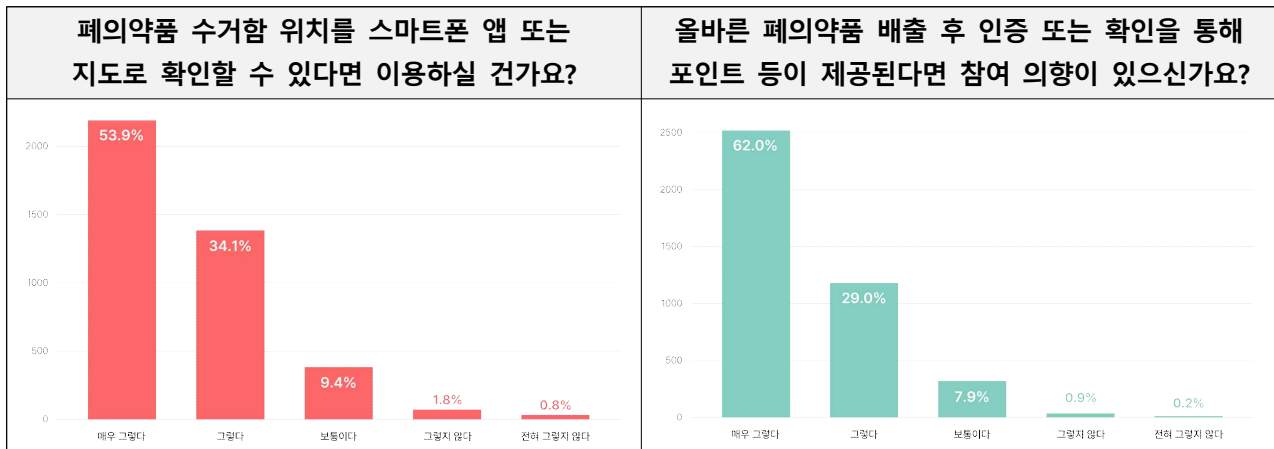
폐의약품 배출이 가능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집 앞, 아파트 단지 내 수거함(44.5%), 가까운 약국, 편의점 반납(31.2%)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수거함 확대 설치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10명 중 6명이 중앙 및 지방정부(61.5%)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시민(30.4%), 관련 기업(4.4%), 환경단체(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의 인식 수준에 비해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7) 스마트폰을 통한 수거함 접근성 확대 및 인센티브(포인트 등) 제공 시 참여 의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지도 앱을 통해 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8%,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91%에 달해 디지털 기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4. 시민들의 목소리

- 쓰레기 배출 관련 규정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규정도 시시때때로 바뀌다 보니 이제는 찾아보다 지쳐서 더 이상 찾아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계속 바뀌니 시민 입장에서 는 힘이 드네요. (김*진, 서울 거주 30대 여성)
- 노약자나 장애인의 약 복용률이 높아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집 근처나 아파트 내에 수거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아, 경기 거주 40대 여성)
- 제조 약은 유통기한도 잘 모르다 보니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처방 시 복용 가능한 기간 등을 설명해 주세요. (옥*빈, 서울 거주 30대 남성)
- QR코드로 약 종류를 스캔하고 분리 방법을 안내해 주는 스마트 수거함을 개발하면 정확한 분리배출 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통해 처리 현황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 인천 거주 40대 여성)
- 약 포장지 내에 QR코드를 삽입하고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의약품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 환경부에서 배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 경기 거주 30대 여성)
-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내에 폐의약품 항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는 앱 등을 활용하여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어떨까요? (유*민, 경기 거주 30대 여성)
- 약국에 들고 가서 버린다고 말하기가 조금 눈치 보여 실천을 못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분리 배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권*정, 서울 거주 40대 여성)
- 편의점, 약국 등과 업무 협조를 통해 폐의약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준비하며, 별도의 앱 제작보다 는 지도 앱을 통해 편의점, 약국에서의 폐의약품 분리배출 가능 여부를 표시해 주면 빠른 활성 화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수, 부산 거주 40대 남성)
- 약국에서는 수거를 거부하고 우체통은 거의 찾을 수 없어 먼 보건소를, 시간을 내어 가야 합니 다. 버릴 곳을 찾기가 어려우니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수거함이 많아야 버리고자 시도를 많이 할 테니 배출 장소를 늘려주세요. 또한, 주변에 의외로 분리배출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 홍보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림, 경상 거주 40대 여성)
- 약을 모아 보건소로 가져가는데 수거함이 작아서 안 들어감. 직원을 부르면 바빠서 바로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너무 불편함. 수거함 크기를 키웠으면 좋겠고, 아파트 대단지에는 수거함이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김*혜, 충청 거주 40대 여성)
- 24시간 무인으로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약국은 야간에 문을 닫으니 퇴근 후 버릴 곳이 마땅치 않네요. (김*리, 경기 거주 30대 여성)

5. 결론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의약품에 대한 자기 인식 수준과 실제 지식수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폐의약품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지만, 구체적인 질문에서는 절반 정도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정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식 전달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수거함의 위치, 접근성,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어렵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 상이한 안내, 규정의 변동성은 시민의 혼란을 가중하는 주요 요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생활권 기반의 수거 인프라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수거함 위치 안내, QR코드를 활용한 배출 방법 안내, 인센티브 제공 등 디지털 기반 참여 유도 방안은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며, 정책적 실효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복약 안내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실제 실천으로 연결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정보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은 폐의약품 문제가 시민, 정부, 약국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

[붙임] 온라인 설문조사지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관한 인식·행동 설문조사

1. 가정 내에 어떤 의약품이 가장 많은가요?

- ☐ 가루약 및 알약
- ☐ 물약
- ☐ 연고
- ☐ 파스
- ☐ 기타

2. 폐의약품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 매우 잘 알고 있다 → 3번으로 이동
-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3번으로 이동
- ☐ 들어본 적은 있다 → 3번으로 이동
- ☐ 잘 모른다 → 4번으로 이동
- ☐ 전혀 모른다 → 4번으로 이동

3.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있다면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접하셨나요?

- ☐ TV / 신문 / 라디오
- ☐ 인터넷 / SNS / 보도자료
- ☐ 학교 교육
- ☐ 약국 / 보건소
- ☐ 우체국
- ☐ 지자체 홍보
- ☐ 관련 캠페인
- ☐ 지인
- ☐ 기타

4.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 ☐ 매우 잘 알고 있다 → 5번으로 이동
-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5번으로 이동
- ☐ 들어본 적은 있다 → 5번으로 이동
- ☐ 잘 모른다 → 6번으로 이동
- ☐ 전혀 모른다 → 6번으로 이동

5. 다음 중 폐의약품으로 분리배출 가능한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처방 조제약
- ☐ 일반의약품 (감기약, 진통제, 안약, 연고 등)
- ☐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홍삼액 등)
- ☐ 의약외품 (밴드 등)
- ☐ 기타

6.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 매우 잘 알고 있다
-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 들어본 적은 있다
- ☐ 잘 모른다
- ☐ 전혀 모른다

7. 최근 1년 내 폐의약품을 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 ☐ 있다 → 8번으로 이동
- ☐ 없다 → 10번으로 이동

8.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 종량제 봉투 배출 → 9번으로 이동
- ☐ 싱크대나 변기에 배출 → 9번으로 이동
- ☐ 재활용품 수거함에 배출 → 9번으로 이동
- ☐ 집에 계속 보관 → 9번으로 이동
- ☐ 약국 / 보건소 / 주민센터 수거함 또는 우체통 배출 → 10번으로 이동

9. 폐의약품을 이전 응답과 같이 처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수거함 /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 ☐ 수거함 / 우체통 위치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
- ☐ 수거함 / 우체통이 더럽거나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 ☐ 폐기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 ☐ 습관이 안 돼서, 귀찮아서
- ☐ 기타

10. 다음 중 직접 폐의약품 수거함을 목격한 곳이 있으시다면 어디인가요?

- ☐ 약국
- ☐ 주민센터
- ☐ 보건소
- ☐ 아파트 단지 혹은 거주지 인근
- ☐ 본 적 없다

11. 폐의약품 분리배출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수거함 확대 설치
- ☐ 인식 캠페인 강화 (광고, 홍보)
- ☐ 약국 / 편의점 반납 의무화
- ☐ 집 앞 / 아파트 단지 수거함 설치
- ☐ 온라인 반납 서비스 도입
- ☐ 기타

12. 다음과 같이 폐의약품 배출이 가능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주민센터 / 보건소 수거함

- ☐ 우체통 수거
- ☐ 가까운 약국 / 편의점 반납
- ☐ 집 앞 / 아파트 단지 내 수거함
- ☐ 택배로 수거 신청
- ☐ 기타

13.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 ☐ 중앙정부 (환경부 등)
- ☐ 지방정부 (서울시, 경기도 등)
- ☐ 시민
- ☐ 환경단체
- ☐ 관련 기업
- ☐ 기타

14.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스마트폰 앱 또는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용하실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5.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후 인증 또는 확인을 통해 포인트 등이 제공된다면 참여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6.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의견이나 아이디어, 제안 등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술형)